



# 同窓會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 재단법인 청관장학회

제 162 호

2009년 5월 1일

발행인: 변 주 선

home page :

www.snueaa.or.kr

e-mail :

snueaa@kornet.net

100-130 서울 중구 순화동 215 바비엠티 1807호 전화 : (02)6399-6500 / (02)720-8116 FAX : (02)720-8117

## 이정식 동문 서울대 언론인 대상 수상



▲ 언론인 대상을 수상하는 이정식 동문  
좌로부터 이형규 관악언론인회장(전 경향신문편집국장), 이정식동문 부인, 이정식 CBS사장

이정식 기독교 방송(CBS) 사장(72학번, 지구과학교육)이 지난 2월 23일 기자와 언론사 경영자로서 세운 공적을 인정 받아 제6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을 수상했다. 프레스센터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유재천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심사위원장은 “이정식 사장은 한국 최초의 민간 방송인 CBS의 직원 출신으로 첫 사장이 된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지난 6년간 CBS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매년 흑자를 기록해 기업신용평가 A등급의 건설한 우량기업으로 키웠으며,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새 활로를 찾기 위해 2003년 인터넷 ‘노컷뉴스’를 출범시켰고, 2006년에는 무료 종합 일간지 ‘네일리노컷 뉴스’를 창간해 CBS의 매체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이뤘다”고 말했다.

서울대 언론인 모임인 관악언론인회 정기 행사와 함께 열린 이날 시상식에는 서울대 출신 전현직 언론인 170여명이, 사대에서는 변주선 회장과 청연회 간부, 동창회 임원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정식 사장은 상을 받은 후 “CBS에 기자로 입사해 올해로 만 30년 됐다”면서 “기자과 경영자의 입장을 모두 경험한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어 “우리 언론은 현재 경영위기와 신뢰 하락 등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해 10년 전 IMF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경영 한파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들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민주화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약간의 낭만을 가졌으나 오늘날은 각 언론사의 취향에 따라 진실을 제각기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스스로 언론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또한 성경 마태복음을 인용하면서 “언론은 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과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시청자와 독자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 卷頭言

## 오늘의 한국은 서울대사대 캠퍼스에서 만들어졌다.

柳子孝 (佛語·68)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부이사장

한반도에 조상들이 자리 잡고 산 이래 전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것은 한반도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있는 지정학적 영향 때문이었다. 외침이 아니면 내란이 있었다. 한반도 주민들의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는데 이것 또한 어려운 일이었다.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찾아왔다. 수천 년 동안 농사는 조상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었다.

한반도 인들에게 생존은 절대 절명의 과제였다. 천재(天災)와 싸우며 농사를 짓고, 난리가 나면 창칼을 들고 나갔다. 이렇다보니 한반도 인들에게 바깥 세상은 위협한 존재였다. 수천 년간 한반도 인들을 지배해 온 것은 수세적, 소극적 세계관이었다.

한반도는 세계사에서 변방이었다. 조선 왕조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열강에게 한반도는 별 의미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던 한반도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다. 조선(造船)과 전자(電子) 분야가 세계 1등을 차지하는가하면, 체육과 예술 분야 등에서 세계 정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GDP로 본 한국의 국력은 세계 12위이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경제 선진국 서클에 들어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첫째 이유는 오랜 평화기이다. 6.25 이후 56년, 외침도 내란도 없는 반세기 이상의 평화는 한반도 사상 유례 없는 긴 기



간이었다. 다음으로는 산업의 전환이다.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주력 산업 전환은 세계의 수요와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한국인의 교육열이다. 오늘날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는 한국이다. 이 수치는 인구 대비로 보면 가공할 숫자이다. 세계 최고라고 할 만한 한국인의 교육열이 반세기만에 폐허에서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것이다.

광복 이후, 한국 교육의 지도자들은 모교에서 배출되었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은 국립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캠퍼스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사대 동문들은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미래의 한국이다. 미래의 한국은 세계 지도국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과학적 위상 강화와 함께 도덕적, 인문학적 소양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을 만드는 것도 교육이다. 모교와 동문들의 역할이 더욱 소중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原稿 모집

제163호 동창회보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발간시기 : 매년 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
2. 원고마감 : 발간 1개월 전
3. 회보형태 : A4(국배판) 16면
4. 모집원고 : 1) 各科 同門會 소식  
2) 各 市道支會 소식  
3) 各 동아리, 모임 소식  
4) 同門 個人 動靜, 人事, 慶弔事  
5) 詩, 隨想, 寫眞  
6) 동창회에 대한 건의사항 등.

보 낼 곳 : 우편 : 서울시 중구 순화동 215 바비엡3차 1807호  
E-mail : snueas@kornet.net

※ 기금적이면 기고자의 E-mail 주소와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協贊廣告 게재 안내

本 會 報 表 4(엔 뒷면)에 게재할 廣告 신청을 받습니다.

1. 내 용 : 회사광고, 상품광고, 이미지 광고, 축하광고, 기타
2. 크 기 : 타블로이드版 全版, 1/2面, 1/4面
3. 협 찬 금 : 광고 크기에 따라 50萬~200萬원
4. 광고제출 : 완성된 Film 또는 圖案
5. 마 감 : 매 분기 末 1개월 前

※ 本會 홈페이지에 게재할 광고도 신청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를 바랍니다.



■ 동창회 소식

■ 2009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청관장학회는 지난 2월 24일 2009학년도 1학기 청관장학금을 재학생 4명에게 지급하였다.



이날 청관장학금 수령자 명단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름	학과/학년	금액
최용석	지구·4학년	2,889,000원
지병구	물리·4학년	2,889,000원
김희겸	독어·2학년	2,611,000원
김민철	체육·4학년	2,889,000원

■ 와인코리아 등 방문

◆ 동문건강연수회

본 동창회에서는 지난 2월 11일 30여명의 동문이 동참하여 인삼의 고장 금산의 홍삼 제조공장과 영동의 와인코리아 공장 등을 방문 견학하였다.



'샤포마니'라는 국산 와인을 생산하는 와인코리아에서는 와인의 제조공정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시음이 있었는데 참가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는 와인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모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즐기고 귀경하였다.

■ 동창회관 매입은 동창회 명의로

◆ 회관건립추진위 및 상임이사 합동회의서

지난 3월 20일 본회는 회관건립추진위와 동창회 상임이사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본회가 추진하고 있는 동창회관 매입 등기 명 의지는 동창회 명의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등기 명의자를 동창회와 장학회 명의를 두고 각기 장단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동창회 명의로 등기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 會館買入 의뢰 계약 체결

◆ ERA(부동산 컨설팅 社)와

본회는 지난 3월 30일 부동산전문 컨설팅 社 ERA와 동창회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ERA사는 본회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적당한 건물을 물색, 가치분석 자료와 함께 본회에 제시하여 본회가 수락하면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기로 하였다.

이날 계약에는 변주선 회장, 유정숙 감사, 박영식 변호사, 이병석 총무담당 부회장, 김창철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 사대 학장단과 각종 행사 협의

지난 3월 24일 본회는 사대 조영달 학장 및 박찬구, 송진웅 부학장, 백순근 기획실장, 본회 변주선 회장, 임동호, 이병석, 김창철 부회장 등이 모여 4월의 등산대회와 5월에 개최할 총회 및 홈커밍데이 행사를 원만히 치룰 수 있도록 상호 협조키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시로 실무자 선에서 협의키로 하였다.

본 회보 제161호 3~4면에 게재된 옥션 불품 기증자 명단에 교육과 17회 유천근 동문의 007서류가방이 누락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유 동문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편집자)

同窓會報 발송에 관한 案内

本 同窓會報는 每回 15,000부 정도를 인쇄 발송하고 있는 바, 住所不明 등으로 每回 500여부가 발송돼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창회에서는 반송자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재발송하고 있으나, 이는 人力 및 경비(1회 발송비 600만원 정도, 연간 2천여만원)의 낭비가 막심합니다.

이에 앞으로 주소 변경 未申告人과 會費 2회이상 未納人에게는 부득이 會報發送을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會報를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서는 이점을 諒知하시고 同窓會 홈페이지(www.snueaa.or.kr)에 게재된 會報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會長 動靜 · 동창회 來訪

### 〈會長 動靜〉

- 09. 2. 6. 유자효 동문 詩集 出刊 祝賀會
- 2. 11. 동문건강 연수회 '와인코리아' 방문
- 2. 17. 청관장학회 이사회 개최
- 2. 23. 이정식 동문 관악언론인대상 수상식 참석
- 2. 24. 2009년도 1학기 청관장학금 수여
- 2. 2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식 참석
- 3. 10. ERA(부동산 컨설팅 社)와 협의회
- 3. 11. 이정식 동문 관악언론인 대상 수상 축하회
- 3. 20. 회관건립추진위 개최  
서울대 총동창회 2009년도 정기총회 참석
- 3. 24. 서울대 총동창회 박연수 사무총장과 오찬회동  
사대 학장단과 동창회 임원 협의회
- 3. 30. ERA와 회관매입 의의 계약 체결
- 4. 9. 청량회 정기총회 참석

### 〈동창회 來訪 人士〉

- 李相周(敎行·13) 前 敎育부장관 겸 부총리
- 金末順(物理·17) 여성동문회 회장
- 林東浩(敎育·18) 본회 사업담당 부회장
- 李英穗(敎行·18) 교수신문 발행인, 前 경기대 교수
- 金英吉(敎育·19) 前 성동고 교장
- 金榮愛(生物·21) 여성동문회 총무
- 李秉錫(數學·22) 본회 총무담당 부회장
- 柳子孝(佛語·25)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부이사장
- 李柄好(英語·27) 서울국제고 교장
- 高永基(體育·29) Future Consulting 사장
- 林英植(英語·33) 변호사
- 林俊彥(英語·34) 숭실대 교수
- 薛原泰(英語·36) 경향신문 선임기자
- 徐東鎭 SK텔링크 상무(徐明源 恩師님 次男)

## 서울대 사대 홈커밍데이

1. 주 최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재단법인 청관장학회 (본 동창회가 설립)
2. 행사일정 : 2009년 5월 23일(토) 14:00~18:00
3. 행사장소 : 모교 교육정보관 및 잔디 광장
4. 참석대상 : 본회 회원, 모교 교직원, 모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5. 행사내용 : 총회, 청관대상 시상, 특강, 남녀노소 동참 프로그램, 장기자랑
6. 기념품 배포 : 참가자 전원
7. 뒷 풀 이 : 식사 및 주류, 음료, 간담회
8. 회 비 : 20,000원(재학생 : 면제)  
※ 준비 관계로 꼭 사전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총회 개최

회칙 제9조에 의거  
2009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09년 5월 23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보관

## 소모임 개설 지원안내

각과 동문회, 지회, 취미(바둑, 등산, 골프 등) 및 학술활동과 관련한 소모임 개설을 희망하시는 단체의 카페구축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특히 각과 동문회에서는 온라인을 이용한 회원교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페꾸미기 공부방 회원 모집안내

포털사이트에서 카페를 개설하는 과정과 배경스킨, 이미지, 움직이는 글, 음악, 듣기 등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이미지와 음악과 같은 기본 소스를 같이 공유하고 공부하는 소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時論

## 교육과 사회 환경

李 柄 好 (英語 · 70)  
서울국제고등학교 교장

따뜻한 햇살이 정겨운 봄이 아름다운 것은 봄이 봄답기 때문이다. 봄은 우리에게 왠지 모든 일이 이루어 질 것 같은 희망을 안겨 준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다. 그러므로 교육이 희망이다. 우리가 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것도 교육의 봄이 오길 기다리는 모두의 바람이라 여겨진다.

국가의 경제적 위기는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IMF 때부터 증가하고 있는 가정 해체현상은 청소년 문제로 직결된다. 부모의 이혼과 가출은 청소년들에게서 가정을 빼앗았고, 희망과 미래를 잃어버리게 했다. 가정에서 내몰린 청소년들이 가는 사회의 어두운 골목에는 범죄로 이끄는 각 가지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 청소년들은 담배와 술과 성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회악에 불들어 가고, 또 다른 사회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는 단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문제로 또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요즈음 초·중·고 학교에서는 교권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자주 나타난다.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교칙을 거부하며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싫고 좋음이 그들의 행동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 견디며 무엇을 해 내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학교 내의 흡연을 금지하는 규칙은 지키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 대해 학생들만 탓할 수는 없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고 우리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은 대신 정신적 세계를 잃어버렸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물질의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물려주었지만 정신적 행복을 찾는 길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 자연의 세계를 잃어버린 인류는 기계문명을 통해 비인간성을 가르쳤고 자연의 이치를 거부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현대사회는 인간을 경시하고 물질을 숭상하며, 행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물질에 집착하는 청소년을 만들어 냈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생활 그 자체가 교육이고, 사회의 모습이 교육이다. 비틀어진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회가 과연 얼마나 교육적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폭력과 거짓과 환락이 넘쳐나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사회는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 환경은 교육적이어야 한다.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학교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문화이다. 어른들의 왜곡된 세계를 교육적인 세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교육자로서 교육적인 사회 환경을 만드는 일에 누구보다 더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교육의 심각함을 논의하는 일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만들어 낸 비교육적인 사회 환경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회의 어두운 골목에서 방황하고 있을 청소년들을 생각하며 지난 봄을 반성하고 2009년 새봄에는 보다 밝고 희망찬 교육 환경을 기대해 본다.

## ■ 모교 소식

### □ 사범대학, 2008학년도 전기 우수 졸업자 시상식 거행

사범대학은 2008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10-1동) 101호에서 2008학년도 전기 우수 졸업자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수상자는 장운실(사회교육과) 외 37명으로 시상식에는 조영달 사범대 학장 및 사범대학 각 학과장, 사대 동창회 김창철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 □ 2008학년도 사범대 예비교사 양성 해외연수 프로그램 실시

사범대학은 2009년 2월 1일부터 9일까지 사범대 예비교사 양성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인원은, ▲ College of Europe에 최수연 외 18명, ▲ Spain-Italy Program에 조현태 외 12명, ▲ Ireland-UK Program에 이상은 외 9명, ▲ Germany-Austria Program에 이영은 외 11명, ▲ 미국 외 6개국 개별연수에 18명이다.

### □ 2008학년도 동계 교수학사협의회 실시

사범대학은 2009년 2월 24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2008학년도 동계 교수학사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교수학사협의회에서는 ▲ 교무, 학생, 서무, 연구, 기획, 교육연구재단, ▲ 사범대학 부설 연구소, ▲ 사범대학 부설학교, ▲ 사범대학 부설 시설 및 공개강좌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 □ 이종재, 한기상, 김동진, 정청희 교수 정년식 및 명예교수 추대

교육학과 이종재 교수와 독어교육과 한기상 교수, 체육교육과 김동진, 정청희 교수의 사범대학 교수 정년식이 2009년 3월 17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원형홀에서 이루어졌다. 아울러 이종재, 한기상, 김동진, 정청희 교수는 2009년 3월 1일자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이종재



한기상



김동진



정청희

## ■ 學科 소식

### □ 教育學科

#### ◆ 전임교수 신규 임용

Lynn Ilon 교수가 2009년 2월 1일자로 교육학과에 신규 임용되었다.



#### ◆ 金東一 교수 대한민국 독서교육 대상 수상

교육학과 김동일(敎83入)교수는 2009년 1월 15일 한국독서교육신문, 독서경영신문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실시되었던 제2회 대한민국 독서교육 대상 시상식에서 독서교육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정보화역기능예방 사업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시상이었다.

#### ◆ 학부생 총 MT 실시

교육학과 학부생 총 MT가 2009년 4월 10부터 11일까지 실시되었다. 교육학과와 의대 대표 행사 중 하나인 총 MT는 매년 봄 학과 교수들과 학부생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이다.

#### ◆ 동문가족 모교방문의 날

교육학과 동문회와 교육학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09 교육학과 동문가족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5월 5일 어린이날 버들골 워터 잔디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학과 동문가족 모교방문의 날 행사는 1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연례행사로, 동문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식을 나누고 함께 따뜻하고 푸르른 봄날을 만끽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이다.

### □ 國語教育科

#### ◆ 2009년 학부생 학술답사 실시

국어교육과는 2009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경상남도 남해 일대에서 학부생 학술답사를 실시한다. 학술답사는 교수, 대학원생, 학부 3학년생이 주축이 되어 매년 봄에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언어실태, 교육현황, 생활문화, 전통문화를 주제로 현장 조사를 하며 조사 결과는 학과 학술지인 '先淸語文'에 실린다.

### □ 英語教育科

#### ◆ 저명학자 초청 강연회

영어교육과는 2009년 4월 9일 교육정보관 101호에서 영어교육 분야의 저명학자인 David Nunan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와 애너하임 대학교의 학술교류협정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것이다.

### □ 獨語教育科

#### ◆ 한기상(獨64入) 교수 정년퇴임기념식

독어교육과는 2009년 2월 12일 호암 교수회관에서 한기상 교수의 정년퇴임 기념식을 가졌다. 독어교육과 교수와 학생, 졸업생, 한기상 교수의 지인들이 함께 모여 한기상 교수의 정년을 아쉬워함과 동시에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다.





◆ 대학원 학술캠프

독어교육과는 대학원 신입생들을 포함해 교수, 강사, 재학생, 졸업생 등이 모두 함께 모이는 학술캠프를 8월말 개최할 예정이다. 대학원생과 교수진의 발표·토론으로 이루어지는 학술캠프를 통하여 연구·학습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친목을 도모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佛語教育科

◆ 단기해외연수 지원

사범대학에서 지원하는 어문계학생 어학연수 장학생에 선정된 2명의 불어교육과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통해 프랑스 현지에서 연수를 받았다. 프랑스어 연수뿐 아니라 프랑스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값진 기회를 가졌다.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범대학 어문계학생 어학연수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 졸업 논문 발표회

불어교육과는 2008학년도 학부, 석·박사 예비졸업생들의 논문발표회를 6월에 사범대학 어학실습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회에서 8명의 졸업예정자들이 문학, 어학, 교수법의 주제를 정해 각 15분 간 발표하고, 이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매 학기 개최되는 학부, 석·박사 졸업논문 발표회에서는 학생들의 참신하고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소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社會教育科

◆ 대학원 동계 컨퍼런스

사회교육과는 2009년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강화도 일대에서 대학원 동계 컨퍼런스를 실시하였다. 이영기 명예교수가 출연한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학원생들의 연구 관심사를 공유하는 학위논문 작성의 필수과정으로 1년에 하계/동계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학위논문 주제에 대한 기초적인 발표와 다른 대학원생과 의견 교류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번의 경우 박사 2명, 석사 5명 총 7명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 歷史教育科

◆ 전임교수 신규 임용

기미지마 가즈히코(君島和彦) 교수가 2009년 3월 1일자로 역사교육과에 신규 임용되었다.



◆ 동문회 신년하례식 실시

역사교육과 동문회 신년하례식이 2009년 1월 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본과 출신 졸업생, 재직 교수 및 현재 재학중인 대학원생, 학부생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 춘계학술고적답사 실시

역사교육과는 2009년 3월 25일(수)부터 3월 27일(금)일까지 충청남도 부여·공주 일대에서 춘계학술고적답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역사교육과에 재학중인 학부생과 관심있는 대학원생, 교수가 참여하여 각종 역사유적을 탐방하는 교외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충청남도 지역은 역사교육과 교외교육의 필수 코스 중 하나로서, 이번 답사에서는 지역사 고찰에 중점을 두어 충청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웅진·사비시기 백제의 정치·문화사와 관련된 유적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地理教育科

◆ 전임교수 신규 임용

Douglas Roger Gress 교수가 2009년 3월 1일자로 지리교육과에 신규 임용되었다.



◆ 2009년 1학기 정기학술답사

지리교육과는 2009년 1학기 정기학술답사를 2009년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인천·강화도 일대 및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실시했다. 이 행사는 교수 및 대학원생, 학부생들이 해당 지역의 인문 및 자연지리를 답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되었다.

◆ 지리교육과의 날 행사

지리교육과는 2009년 1학기 중에 졸업한 선배와 현재 재학 중인 후배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선배의 인생 경험 답과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선후배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 장학 기금 마련을 위한 임원 모임 개최

2008년도 11월부터 매월 정기적인 임원 모임을 열어 후학들을 위한 장학 기금 마련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기별, 직능별로 일정 기금을 할당하여 효과적으로 장학 기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입학 또는 졸업 동기들이 서로 만나 동문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기금도 마련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

◆ 2009년도 정기 총회

3월 말 경 2009년도 정기 총회를 가졌다. 그동안 정성스럽게 모여진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선후배들의 발전을 축하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 數學教育科

◆ 수학교육과 총 MT

수학교육과 총 MT를 2009년 4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로 대성리에서 실시했다. 이는 수학교육과 교수와 학부생들이 참여하여,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 동문 등산회 개최

수학교육과 동문 등산회(대장 박현제, 부대장 이용수)가 2월 7일 북한산 천해대에서 일년동안 무사무탈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지냈다. 올해에는 한적한 장소를 골라 계수도 많이 준비하고 축문도 제대로 준비하여 엄숙하고도 경건한 마음으로 산행의 안전을 산신령님께 간절히 빌었다.





### ◆ 임원회의 개최

금년도 첫 임원회의(회장 이병석)를 2월 22일에 교대역 현종할 매집에서 갖고, 올해의 사업목표를 확정하였다. 예년과 같이 봄나들이(6월 13일),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내년 1월 11일) 일정을 정하고 각 동아리(등산, 바둑, 골프)마다 자율적으로 행사를 갖되 등산, 골프는 최소한 4회, 바둑은 2회를 갖도록 하고, 젊은 회원을 위한 등산팀을 한개 더 신설하여 동문 상호간에 친목의 장을 넓혀가기로 하였다.

### ■ 物理教育科

#### ◆ 교외교육 실시

물리교육과는 5월 1일 관악산에서 고도-기압 측정 및 분석을 중심으로 교외교육을 실시한다.

#### ◆ 스승의 날 행사

물리교육과는 5월 15일 스승의 날 행사를 실시한다.

#### ◆ 졸업논문 포스터 발표

물리교육과는 6월 4일 졸업논문 포스터 발표를 실시한다.

### ■ 生物教育科

#### ◆ 동문운동회 개최

- 배드민턴 대회 : 2009년 4월 18일 (오후 3시 부터), 장소 : 난우중학교 강당 (회장 : 최진복, 총무 : 백승용)
- 테니스대회 : 2009년 5월 중순경 (1박 2일 예정), 장소 : 마석 테니스 펜션 (회장 : 김치경, 총무 : 배진호)

#### ◆ 춘계야외채집대회 실시

생물교육과는 2009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2박3일 동안 경기도 유명산에서 춘계야외채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생물교육과의 모든 학부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각 실험실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며, 새봄을 맞이하면서 자연 속에서 생명의 기운을 몸소 느끼며 생물교육과의 친목을 도모하게 된다.

#### ◆ 야외실습 실시

생물교육과는 2009년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동안 충남 서천 춘장대에서 야외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야외실습교육은 생물교육과의 대표적 야외자연체험교육으로서 여름 바닷가에서 해양 무척추동물의 생태와 발생, 해안식물생태계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 化學教育科

#### ◆ 신년하례식 개최

화학교육과 동창회 신년하례식이 지난 2009년 2월 4일 저녁 6시 낙성대 영양두부마을에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동문회의 모교 지원 및 동문들의 찬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모교 분자모형조립세트 구입 지원 : 1,000,000원
2. 24기 회장 선출을 기념한 24기 동문의 찬조 : 찬조금, 화학교육지, 해양심층수, 3색 볼펜, 휴대용 비누치약세트

### ■ 體育教育科

#### ◆ 2009. 3. 13 Clean Day!

체육교육과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모여 종합체육관 각 강의실, 전공별 실험실, 학생회실, 교수님 연구실 등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을 스스로 청소하고, 평소에 더욱 청결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다짐을 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 ◆ 신입생 환영 체육대회

체육교육과는 2009년 3월 20일 서울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신입생 환영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 ◆ 모교방문의 날

체육교육과는 2009년 5월 16일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실시한다.

## 話題의 同門

### ■ 金在浩(명동안과병원장)

김수환 추기경 '안구기증' 붓글씨, 성모병원에 기증 '異色同門' 김재호(生物56入) 명동안과 병원장이 그동안 고이 보관하고 있던 故 김수환 추기경의 친필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는 휘호를 명동성모병원에 기증, '眼센터' 앞에 걸리게 됐다.

서울대 師大 生物科를 졸업하고, 다시 의과대학에서 眼科를 전공한 김원장은 우리나라 眼科 最多 수술실적의 원로교수이며, 안구기증 운동의 선구자 중 한명으로 5,000명의 안구기증자를 모으기도 했고, 백내장 환자 1,300여명에게 개안수술을 통해 빛을 되찾아 주기도 했다.

김원장은 1987년 김추기경에게 간청하여 휘호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안구 기증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신 이후 안구기증자가 한 해 3,000명 선에서 지난 2월 16일 이후 2개월여 만에 1만명을 넘어 섰다고 한다.

(명동안과병원 02-777-5778/9, E-mail : kimjheye@yahoo.co.kr)





■ 동호회 소식

「여성동문회」

◆ 여성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여성동문회 정기총회가 4월 15일 (11:30-15:30) 역삼동 세일아트홀에서 열렸다. 변주선(사대 동창회장), 박영자



(wcprr회장), 김영의(초대회장), 김순오(3대회장), 김미자(4대회장), 김필수(5대회장), 김옥진(6대회장) 등 7명의 고문을 비롯하여 50여명의 여성동문들이 참석하였다.

총회 1부는 김영애(생물21) 총무의 사회로 진행하였는데, 김발순(물리17) 회장은 인사말에서 모교의 발전과 선후배간의 감사와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무한한 에너지를 다시 한 번 발휘할 수 있는 신바람 나고 뜻 깊은 여성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격려사에서 변주선 고문은 사대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동문들의 결속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김영의 고문은 17년의 역사를 가진 여성동문회의 지나는 발자취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2부 행사는 심미혜(체육21) 부회장의 재치 있는 사회로 진행되었다. 행운권 추첨은 많은 동문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으며, 찬조출연을 한 서울음대 출신인 성악가 박경미 교수(건국대)가 부른 우리 가곡 '가고파'는 지난 학창시절에 대한 추억에 잠기게 하였고, 음악영화 August Rush를 보면서 감동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4시간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참가 선불과 여성동문회 소식지(5호)를 보면서 동문 모두 다음 모임을 기대하였다.

「청공회」

청공회(회장 김경희, 사회74)는 지난 3월 12일 안국동 부근의 '호반'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은 회원 20명과 사대 동창회 변주선 회장과 김창철 상임부회장도 함께 참석하였고, 김재홍(국어·66, 경희대 국문과 교수, 만해학술원장) 동문의 현대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청량회」

청량회(회장 윤용혁, 독어60) 2009 정기총회가 4월 9일 18시 30분에 '연와'에서 회원 총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고윤섭(영어65)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윤용혁 회장 인사에 이어, 내빈 및 원로 회원 소개, 변주선(영어60) 사범대학 동창회장의 축사, 2008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새로운 집행부 구성 발표 후, 만찬과 답소시간을 가졌다. 모두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동문회원간의 정을 나누었는데 이날 모든 비용은 윤용혁 회장께서 쾌척했다.

◆ 회원동정

하순봉(독어60) 일자리방송회장으로 어려운 취업난에 고용증진 확대사업에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고 있음.  
정진대(지리71,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협회주최 2009 Seoul Air Show가 성남비행장에서 10.20부터

1주간 개최 예정인바 사대 동문들의 많은 방문을 바라며, 동문들께는 free tickets 제공을 약속.

전경환(영어76, Fedex 영업상무) 모교의 global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좋은 후배 인력채용에 기여하고자하니 추천 바람.

심상정(역사78) 진보신당 공동대표의 임기만료가 되어 서로 가르치고 함께 배우며 더불어 실천하는 '마을학교' (고양시 화정동 소재) 사업에 열정을 쏟고 있다.

「청사로타리클럽」

우리 師大 동문들만으로 구성된 국제로타리 3650지구 서울청사클럽(회장: 曹昌燮, 독어61)은 최근 조승제(母校교수, 수학64), 고영신(경향신문 상무, 국어76), 이홍자(師大附女中 校長, 국어70), 이상주(前 교육부총리, 교행56), 정청희(前 母校교수, 체육62), 이돈희(前 교육부장관, 교육56), 김명곤(前 文化部 장관, 독어72), 임번장(前 母校교수, 체육60), 김대행(前 母校교수, 국어61), 김신일(前 교육부 총리, 교심59) 등 많은 분들이 새로 入會하여 매우 활발한 주회 활동을 보이고 있어 he클럽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특히 4월 27일 週會에는 朴東宣 氏의 '국제외교와 로비'라는 주제의 특강 있어 참가자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도 했다.

청사로타리클럽을 이끌고 있는 曹昌燮 회장은 회원 증강의 공을 크게 인정받아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로부터 2차례의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청사로타리클럽은 師大同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非會員(격주: 2, 4번째 月요일 12:00, 여의도역 홍보석)도 참석하여 특강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동문들 참여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고 하고 한다.

「을지회」

을지회(회장 이인규, 지구59)는 사범대 동문만으로 조직된 골프 모임으로 김종필 동문께서 지원해 주신 5,000만원을 시드머니로 현기금 1억7,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매주 3번째 金요일 화성 상록 골프장에서 20년째 계속되고 있는바 새로운 신입회원의 가입을 적극 권유. 지난 3월 20일 화성상록 골프장에서 1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가졌으며, 4월 17일 모임에는 4개조가 참가했고 정원식 전 총리께서도 함께 라운딩 하였다.

「화기애애한 COE 합창단」

노래를 좋아하는 사범대, 생활과학대의 동문들의 모임이 몇 십년만에 결성되다보니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한가위 보금달처럼, 갈대잎 스치는 소리처럼 정말로 보고 싶고 듣고 싶어서일까 음악과 함께하는 눈꽃여행은 학창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2월 4째주 토요일에는 55학번의 이인자 교수님, 김순오 교장님도 합류하여 우리들의 추억을 되살리며 창단시절의 얘기도 듣고, 60학번의 정영숙 교수님, 이희자 교수님, 조정자 교장님도 먼 길을 마다하고 참석해 더욱 더 진한 동지애를 느끼는 하루가 되었다.



## 선택과 집중

崔雲植(地理·63)  
前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장

교통통신기관의 발달로 시간거리가 더 짧아져 세계는 지구촌사회가 되고 있다. 지구가 이웃과 같다는 의미의 지구촌사회에서는 언어의 소통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발달로 타국어가 자국어로 즉시 번역되는 사회가 눈앞에 오고 있다. 그때에는 외국어를 못해서 타인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지구촌사회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 전세계인구의 과반수가 쓰는 영어를 배워야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지난 DJ정부 때부터 영어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고급공무원들에게 영어를 배우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언제나 서두르면 부작용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 예의 하나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장회의를 영어로 진행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지방정부 관리들이 영어로 회의를 한다면 그 회의는 잘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궁금하다.

유럽의 베네룩스 3국같이 국토 면적은 좁으나 잘사는 나라는 오래전부터 학생들은 영어와 이웃나라 언어 2개 도합 3개 외국어를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다. 그들은 영어는 세계를 상대로, 기타언어는 인접국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배우고 있다. 다국화사회를 위한 포석이었다고 본다. 우리도 영어 일변도 보다는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10여 년 전의 일이다. 미국인 교수가 우리 과에서 강사로 1년간 강의를 했는데 강의시간에 가보니 전공교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보다는 영어과 학생이 더 많이 청강하고 있었다. 이해가 안가는 일이다. 영어는 학문을 하기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말이다. 최근에는 모든 학과에서 두 과목 이상 의무적으로 영어로 강의를 시키고 있다. 또 일부 학과에서는 전 교과를 영어로 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대학교들이 앞 다투어 영어강의를 도입하고 있다. 영어로 강의를 하면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도 아니고 교수 학생간의 의사소통은 더 어려워지는데 이를 실시하는 이유는 학교평가 때문이다. 영어로 강의를 하면 외국의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이것은 결국 국가의 부를 축척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대학을 상대로 영어강의를 강요하지 말고 몇몇 학과 예를 들면 한국학관련 분야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만 영어로 강의를 시키면 어떤가? 그러면 외국학생들도 많이 유치 할 수 있고 한국어의 세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수위시절부터 말썽 많던 영어 교육은 준비가 덜 된 정책의 표본이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원어민교사가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원어민 교사는 부족하고 학생들은 이를 따라 오지 못하는 등, 예전에는 전국의 영어교사를 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시키더니 이번에는 원어민교사를 수입하고 있으나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국가정책이 영어 일변도로 가니 전국의 많은 학생이 영어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강남의 일부 지역에 국한될지 모르나 유아원이 벼락을 맞고 있다. 유아들도 영어 학원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기에 있는 유아는 우리말도 서툰데다가 여러 가지 놀이학습을 시켜야하는 시기인데 영어공부만하니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가뜩이나 정서가 메말라 가는데 말이다. 또 한달 학원비가 100만 원대이다 보니 젊은 아버지의 허리는 더욱 휘게 마련이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은 상상도 못할 지경이다.

투자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를 무시한 정책을 시행하려다.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예를 들면 대학입시를 완화한다고 시, 군에 대학을 하나씩 세우더니 지방에서는 대학이 넘쳐서 지금은 대학의 흡수통합이 유행하고 있다. 많은 세금이 대학 없애는데 들어가고 있으니 웃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사례를 들면 공항 건설은 수조원이 들고 유지비도 수천억이 드는데 지방곳곳에 공항을 건설하니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 파리만 날리고 있다. 사실 땅덩어리가 좁은 국가는 공항보다는 자동차를 자동차보다는 철도를 선호하는 게 상식이다. 유럽의 국가를 보라. 그들이 공항대신에 철도에 집중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이야기를 하면 환경을 무시한 정책으로 발생한 피해 중 제주도의 까치와 제주조립대의 피해는 두고두고 골칫거리이다. 까치는 농부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제주조립대를 보호하기위해 말의 방목을 금지한 이후 제주의 생태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사리에 안 맞는 정책,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정책을 위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고 국가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지도자가 각성해야 할 것은 모든 정책을 즉흥적으로 하지 말 것이며 모든 것을 실험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이 실험용이라면 그 후유증은 국가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치고 나쁜 게 어디 있는가? 우리 환경에 맞지 않는 정책을 실시하다보니 실패하는 것 같다.



■ 同門 動靜

■ 閔丙峻(社會·52入) 前 회장

ABC협회 회장에 재선임

한국 ABC협회는 지난 2월 26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0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민병준(사회52入, 본회 전 회장) 현 회장을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 鄭清喜(體育·62入)

한국스포츠심리연구원 개원

정청희 동문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과에서 31년간 교수로 봉직하고, 지난 2009년 2월 27일 정년퇴임을 한 후, 각종선수들의 심리훈련프로그램 제작 및 심리훈련을 위하여 한국스포츠심리연구원을 개원하였다. 정 동문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한국양궁국가대표팀을 1년간 심리훈련을 시켜 금메달 3개와 1개의 은메달 획득에 공헌하여 2004년 대한민국 체육상을 수상한 바 있고 최근에는 골프에서도 많은 국가대표선수(이정민, 허윤경, 정연주)를 배출하였다.



전 화 : 02-2192-3796, 011-9902-9496

E-mail : chchung59@naver.com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 역삼 현대벤처텔 1116호

■ 金洙奂(數學·77入) 청주교대 총장

충북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김수환 동문은 충북교육청과 지난 4월 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崔熙善(敎行·61入) 중부대 총장

崔熙善 중부대 총장은 4월 20일(月) 충남교육연수원에서 '學校長의 Leadership'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 高永基(體育·72入) 동문

Future Consulting 사장에 취임

고영기 동문은 서울대 사대를 졸업한 후 고려대에서 경영학을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Denver대학에서 행정학과 국제정치학 석사를, 동대학에서 교육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후 미국 Denver대학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미국 NBC방송 서울올림픽 중계 행정보좌관, 서울대 사대 강사, 대한적십자사 교육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전 화 : 02-2291-6627, 010-6713-8599

E-mail : drko@futureconsulting.co.kr

홈페이지 : www.futureconsulting.co.kr

■ 徐明源, 恩師님

神道碑 除幕式, 鄉里 論山에서

지난 4월 14일 故 徐明源, 母校 學長님의 3週年을 맞이하여 선생님의故鄉 論山에서 追悼會를 겸한 神道碑 除幕式을 가졌다.

이날 除幕式에는 神道碑 設立 委員長이신 金宗西(前 母校 敎授, 學長) 동문과 本會 金昌哲 상임부회장, 가족, 大丘 徐氏 大宗會 徐眞錫 회장 등을 비롯한 30여명이 참석하여 故人의 冥福과 功德을 기렸다.

■ 인천광역시 安相洙(體育·71入) 市長

美 우드로윌슨상 수상

안상수 동문이 美國의 공공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에서 수여하는 공공서비스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우드로 윌슨상은 美 연방정부가 미국 외의 지역 인사에 수여하는 유일의 상으로써, 지역, 국가 및 국제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방된 자세, 대화 및 봉사정신을 전 세계도시의 지도자에게 수여된다.

윌슨 국제센터 측은 "9월에 만찬과 함께 개최되는 시상식은 이홍구 전 총리가 주재하게 된다."며, "이번 시상식은 윌슨 국제센터가 해외에서 개최해 온 몇 안되는 시상행사이며,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 된다."고 한다.

■ 申性澤(社會·58入) 前 大法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에 위촉

申性澤 동문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다. 大法官을 역임한 申 동문은 현재 법무법인 '올촌'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李元雨(敎育63入) 동문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총장에

李元雨 전 한경대 총장이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신임 총장에 임명됐다. 李 총장은 師大 敎育科를 졸업하고, 문교부 대학교육지원국장, 서울시부교육감, 대통령 교육문화비서관, 교육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5월 15일 갖는다.



■ 停年退職 (2009. 2. 28.)

- 孟惠烈(家政·21회) 연남고등학교 교사
- 姜輝國(歷史·22회) 둔촌고등학교 교장
- 俞潤在(地理·22회) 인천 계양고등학교 교장
- 南日祐(數學·22회) 선린중학교 교장
- 李明哲(數學·22회) 인천남고등학교 교감
- 鄭大永(數學·22회) 동성고등학교 교사
- 洪達植(物理·22회)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장
- 南昌烈(化學·22회) 신앙중학교 교장
- 崔宗洙(體育·22회) 구의중학교 교사
- 宋永變(英語·23회) 당곡고등학교 교장
- 朴盛根(地理·23회) 백운중학교 교장
- 孫慶姬(家政·23회)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교장
- 南泰郁(社會·24회) 천호중학교 교장
- 嚴榮周(生物·24회) 등촌고등학교 교장
- 朱基榮(英語·25회) 동성고등학교 교사
- 柳点永(數學·25회) 개포고등학교 교장
- 安英淳(數學·25회) 서울공업고등학교 교사
- 鄭鳳變(數學·25회) 서초고등학교 교장
- 張基文(生物·25회) 삼성고등학교 교사
- 高弼坤(敎育·26회) 경동고등학교 교장
- 姜結仁(物理·26회) 효문고등학교 교장



李如松(體育 · 26회) 인현고등학교 교사  
金武成(物理 · 28회) 서초고등학교 교감  
吳宗均(地球 · 28회) 휘경중학교 교장

■ 敎員 人事 (2009. 3. 1.)

〈서울〉

金成烈(歷史 · 26회) 성수고등학교 교장  
昇龍基(歷史 · 26회) 개포고등학교 교장  
朴熙末(生物 · 26회)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장  
李敬馥(國語 · 29회) 서울고등학교 교장  
黃貴淵(國語 · 32회) 서초고등학교 교장  
成東駿(體育 · 33회) 구로고등학교 교장  
金聖泰(體育 · 26회) 장평중학교 교장  
李商旭(物理 · 27회) 상신중학교 교장  
安世煥(英語 · 28회) 목은중학교 교장  
朴제東(地理 · 28회) 신월중학교 교장  
金然城(歷史 · 28회) 대림중학교 교장  
林文洙(數學 · 28회) 봉림중학교 교장  
權七善(地球 · 28회) 월촌중학교 교장  
梁亨烈(地理 · 29회) 휘경중학교 교장  
黃仁(體育 · 31회) 미양중학교 교장  
裒得銀(數學 · 32회) 백운중학교 교장  
金東湜(體育 · 33회) 방화중학교 교장  
姜舜圭(體育 · 36회) 신목중학교 교장  
崔炳甲(英語 · 37회) 구로중학교 교장  
丁海主(體育 · 39회) 송파중학교 교장  
金洪植(國語 · 22회) 휘경공업고등학교 교감  
金成基(敎育 · 28회) 강남교육청 교육장  
許成日(化學 · 28회) 한성과학고등학교 교감  
鄭相潤(生物 · 31회) 경동고등학교 교감  
李惠蓮(數學 · 33회) 신도림고등학교 교감  
李元徽(敎育 · 34회) 노원고등학교 교감  
李斗煥(國語 · 34회) 경북고등학교 교감  
尹梧榮(數學 · 34회) 당곡고등학교 교장

李明鎬(敎育 · 36회) 반포고등학교 교감  
崔承澤(社會 · 40회) 미양고등학교 교감  
全球淑(國語 · 31회) 동마중학교 교감  
馬熙昌(社會 · 32회) 신동중학교 교감  
金慶玉(地球 · 32회) 기원중학교 교감  
田炳和(敎育 · 30회) 본청 교육과정정책과장  
金榮國(數學 · 31회) 성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  
李福均(體育 · 32회) 강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李和城(化學 · 38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  
安勳(數學 · 37회) 강서교육청 장학사  
俞景植(地球 · 37회) 동작교육청 장학사  
趙銀衡(社會 · 39회) 성동교육청 장학사  
張允瑄(歷史 · 40회) 동부교육청 장학사  
金銀孝(體育 · 42회) 동부교육청 장학사  
姜堯植(歷史 · 37회) 본청 중등교육정책과 장학사  
劉大煥(地理 · 37회) 본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사  
閔炳仁(數學 · 37회) 본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사  
全永植(國語 · 41회) 본청 중등교육정책과 장학사  
崔令圭(獨語 · 42회) 본청 교원정책과 장학사  
柳珉錫(倫理 · 42회) 본청 교원정책과 장학사  
李鍾文(國語 · 33회)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張善盛(國語 · 39회)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金鍾熙(生物 · 34회) 과학전시관 교육연구사  
黃元起(地球 · 35회) 과학전시관 교육연구사  
閔榮惠(化學 · 39회) 과학전시관 교육연구사  
李斗熙(國語 · 44회)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邊泳洙(體育 · 44회) 학생교육원 교육연구사

〈경기〉

金載欽(數學 · 33회) 광주하남교육청 학무과 장학관  
李滌亨(生物 · 31회) 안성교육청 학무과 장학관  
李相彥(物理 · 35회) 초지고등학교 교장

〈인천〉

黃在淳(國語 · 28회) 인천시 교육연수원 연수부장  
백완희(家政 · 25회)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교장

인생은 허무한 존재이다.

허 천(敎員國語 · 75)  
前 선정고등학교 교감

늡으면 다 건강 관계로 고통을 받고 있다.

혹자는 몸이 건강하여 걱정 없이 지내고 있는 분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체의 건강관계로 심려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인생은 허무하다고 한다.

노년의 건강은 운동을 피하지 못하기 마련이다. 일어나 한 사코 운동을 해야 한다. 가장 쉬운 운동하면 걷기이다. 숲 속을 걷는다는 것은 유산소 운동이다. 경제적 부담 없이 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걷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루에 10,000보는 걸어야 한다. 어느 의사는 누우면 죽고 일어나 걸으면 산다고 한다.

가능하면 뛰어서 걷는 것이 좋다고 한다. 걸으면 건강하고

누우면 약해지게 마련이라고 한다. 한번 약해지거나 병들면 인생은 누구나 허무해진다. 노인에게 많이 오는 것은 뇌졸중이다. 거리에는 그런 환자가 많다. 다리를 절며 걷는다. 마비가 온 것이다. 마비가 오면 정말 고치기 어렵다. 그런 환자가 50만이 된다고 한다. 암도 흔하지만 뇌졸중이 더 많다고 한다.

혹자는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 사람, 마라톤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고통을 인내하고 목적을 달성한다. 그런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는 걷고 뛰는 사람이 되자. 참으로 건강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결코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된다.



## 인터넷이 찾아준 소중한 인연들

朴俊彦(英語·77)  
송실대학교 영문과 교수

몇 년 전 봄, 제 국민학교(초등학교) 동창 한명이 제게 초등학교 동창 카페가 개설되어 있으니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동창 모임이라고 하면 으레 고등학교나 대학교 동창모임을 생각하게 되어서인지, 초등학교 동창카페가 있다는 말을 듣고도 한동안 접속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카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제 생각과 달리 이미 수많은 동창들이 카페에 참여하여 글과 사진들을 올리면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덕분에 저도 40여 년 전 코흘리개 시절로 돌아가 옛 동창들과 온라인상에서 재회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 중 일부는 오프라인 상에서도 만나며 옛 추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6년 겨울 저는 미국에서 한통의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1980년대 중반 미국 유학시절, 함께 유학생생활하며 알게 된 제 또래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학위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이 친구의 소식이 궁금하던 차에 뜻밖의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유학당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국 내 다른 대학원으로 전학해야했던 이 친구와 아쉬움을 간직한 채 헤어진 후 서로 연락이 끊긴 채로 20여 년이 흘렀는데, 이 친구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당시 모 일간신문에 게재된 제 칼럼을 보고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연락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곳에 정착하고 있는 이 친구는 그동안 제 소재를 찾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허사였는데 인터넷을 통해 옛 친구를 다시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노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이 저와 제 친구의 인연을 다시 이어준 귀중한 고리가 된 셈입니다.

작년 말 제 고등학교 동기동창 송년 모임에 참석해서 동창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자신은 중학교 동창들과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도 기억 속에 아련히 남아있는 중학교 동창들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았습니다. 그중에 3학년 시절 저와 같은 반 급우였던 S의 모습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전교 수석을 놓치지 않던 이 친구는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친구의 소식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지난 1972년 중학교를 졸업한 후 37년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S.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창에 이 친구 이름을 입력해보았습니다. 검색결과 이 친구와 동명인 사람들의 정보가 몇 개가 나왔는데 그중 하나

의 얼굴사진에서 이 친구의 옛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순간, 마치 금맥을 찾은 것처럼 이 설렘했습니다. 이 친구는 현재 모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지난 1월 초 이 친구의 연구실에서 오랜만에 해후하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뀐 후의 재회, 제게는 인터넷이 되찾아준 소중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학과 동기동창들은 지난 1981년 대학 졸업 후 25년 동안 전체 동기동창모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동기들끼리는 그동안에도 소규모 모임을 가졌겠지만 모든 동기들이 함께 모이는 동창모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여름 미국에 거주하는 한 동기가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제게 안부를 묻는 이메일을 보낸 후, 그동안 동기들 서로 간에 소식도 모르며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이제는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제가 인터넷 동기카페를 개설했습니다. 그러자 동기들이 그동안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대학시절의 추억의 편린들을 봇물 터지듯 카페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일 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동창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기들도 비록 몸은 함께할 수 없지만 이메일과 동기카페를 통해 국내 동기들과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기카페를 개설했을 때, 교사이며 시인인 제 학과 동기가 동기들을 다시 연결해준 인터넷의 고마움을 '인터넷망에 축복 있으리'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사용의 폐해에 대한 비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래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터넷은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그리운 옛 친구들을 다시 찾은 저로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사대총동창회 홈페이지와 동창회 카페가,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진출해있는 수많은 사대동문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곳을 통해 한동안 잊혀진 옛 동창들의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제 귀에는 Mary Hopkin이 부른 'Those were the days' 라는 노래가 은은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아, 옛날이여!’

##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합시다.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6305 (예금주 : 변주선)

천재교육의 崔容準 회장을 비롯한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동문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모금 총액은 약 31억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동문들께서는 액수의 과다에 껄념치 마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관 건립 기금 신규 출연자 (2009. 2. 1.~2009. 4. 3.)

이정식(지구·29회) 200만원 허현호(수학·24회) 250만원 홍순관(지구·16회) 100만원 최지영(역사·46회) 10만원

## 동창회비를 납부합시다.

본 동창회는 師大 전체 동창회의 活性化는 물론 各科 同門會, 市道支會 등의 활성화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간의 동호회 활동, 친목대회, 동문과 동문간의 교류지원방안 등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로번호 : 7521964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3405 (예금주 : 변주선)

#### 회비내역

- 자원위원 : 100,000원 이상
- 회 장 : 2,000,000원 이상
- 부 회 장 : 500,000원 이상
- 감 사 : 300,000원 이상
- 상임이사 : 200,000원 이상
- 이 사 : 50,000원 이상
- 일반회비 : 20,000원 이상
- 평생회비(1회) : 200,000원

### 회비 납부자 명단 (2009.2.1.~2009.4.16.)

#### 회장단·임원회비

박준언(조직부부장, 영어·34회) 20만원

#### 평생회비(20만원)

한기언(사회·2회)	조진현(화학·14회)	류점영(수학·25회)
조동순(영어·4회)	정완호(생물·16회)	윤하영(역사·26회)
성백신(화학·4회)	하순봉(독어·17회)	이천승(수학·26회)
김준문(사회·5회)	최학준(지리·17회)	홍승직(국어·27회)
이태근(사회·7회)	이 형(수학·17회)	이완섭(국어·28회)
정인석(교육·8회)	고두원(체육·17회)	김성민(불어·29회)
신태복(영어·8회)	사중식(체육·17회)	강경돈(영어·30회)
원훈의(국어·9회)	류길재(교심·18회)	박천중(불어·30회)
홍정식(사회·9회)	전신재(국어·18회)	안주희(사회·30회)
박용현(교행·10회)	최현섭(국어·18회)	김하준(생물·30회)
맹천호(교행·13회)	김조영(지리·18회)	전용근(물리·31회)
안인애(영어·13회)	홍문재(가정·18회)	고영기(체육·31회)
한상주(생물·13회)	김경재(가정·20회)	김수환(수학·35회)
김헌재(국어·14회)	박성수(교육·21회)	강병문(체육·35회)
최영상(영어·14회)	윤웅섭(수학·21회)	윤신덕(역사·39회)
장기욱(사회·14회)	김정욱(수학·23회)	박현덕(물리·58회)
조동준(물리·14회)	박연수(역사·25회)	

정치순(8회) 5만원	최은식(20회) 5만원	(생물)
(영어)	(수학)	구성희(12회) 5만원
강의정(18회) 5만원	조승제(21회) 10만원	오건주(33회) 5만원
김종원(18회) 5만원	(물리)	(가정)
이동식(29회) 5만원	이승우(19회) 5만원	고정욱(12회) 10만원
(사회)	(화학)	(체육)
문상호(8회) 5만원	이상진(18회) 10만원	박종달(6회) 5만원
(지리)	신일윤(27회) 5만원	김의수(17회) 5만원
신중성(18회) 5만원	박정혜(35회) 5만원	김주화(22회) 5만원

#### 일반회비

김명규(물리·52회)	(교심)	최방지(16회) 2만원
(경사)	진패현(9회) 3만원	고병철(18회) 2만원
제욱례(여연·10)2만원	한수인(10회) 3만원	송재욱(27회) 2만원
(예과)	(교행)	이창호(28회) 2만원
최학준(이48년) 2만원	박영배(10회) 2만원	변모은(47회) 2만원
함원식(문49년) 2만원	신철지(18회) 3만원	조진수(59회) 2만원
(교육)	(국어)	(영어)
박인식(5회) 2만원	이병무(5회) 2만원	전래수(9회) 2만원
진위교(11회) 2만원	황기택(6회) 2만원	정희수(9회) 2만원
신용국(12회) 2만원	서부원(10회) 2만원	최순길(9회) 2만원
현재복(13회) 3만원	임홍선(10회) 2만원	박제학(10회) 2만원
이오봉(23회) 2만원	김선식(15회) 2만원	이병주(11회) 2만원
윤재운(28회) 2만원	김성렬(15회) 2만원	민영업(13회) 3만원
		김영자(16회) 2만원

#### 이사회비

(국어) 박영재(3회) 5만원 손수일(8회) 5만원



권문한(31회)	2만원	강정식(17회)	2만원	박상수(15회)	2만원	김선주(33회)	2만원	장일원(10회)	2만원	김순녀(12회)	2만원
이인기(38회)	3만원	김혜우(22회)	2만원	이영운(15회)	2만원	김철규(37회)	2만원	정근훈(11회)	3만원	서병숙(12회)	2만원
(사회)		이재후(23회)	3만원	입광수(25회)	2만원	(화학)		박의란(13회)	3만원	한영숙(13회)	3만원
주봉노(12회)	2만원	(지리)		김보은(58회)	2만원	김한정(8회)	3만원	이정태(13회)	3만원	최명진(22회)	2만원
이호상(16회)	2만원	강신호(13회)	2만원	(물리)		이현순(10회)	2만원	최병주(13회)	2만원	(체육)	
성경제(19회)	2만원	김수신(17회)	3만원	김용석(11회)	2만원	정해성(13회)	3만원	김영애(21회)	2만원	김동한(14회)	3만원
안광화(22회)	2만원	서광원(25회)	2만원	윤재봉(13회)	2만원	윤학진(16회)	3만원	심숙주(31회)	2만원	김진원(14회)	2만원
(역사)		박규병(34회)	2만원	최인수(13회)	2만원	권 승(26회)	2만원	(지구)		박정래(16회)	2만원
변태섭(2회)	2만원	권혁인(38회)	2만원	오중식(14회)	2만원	김익숙(31회)	4만원	봉정모(28회)	2만원	윤익모(19회)	2만원
박장순(10회)	3만원	(수학)		이완식(14회)	2만원	(생물)		(가정)		이만형(22회)	2만원
이홍중(11회)	2만원	조병완(10회)	2만원	양일식(15회)	2만원	김동찬(8회)	3만원	신혜순(4회)	2만원	신승철(24회)	2만원
구자혁(15회)	2만원	이상규(13회)	2만원	한천옥(28회)	2만원	한주호(9회)	2만원	이종순(9회)	2만원		

## 평생회비(20만원) 납부자 명단 (2006. 1. 3. ~ 2009. 1. 23.)

허봉출 (경여사심·4회)	김덕한(지리·10회)	이성호(영어·15회)	임향순(수학·17회)	김상기(국어·22회)	이병호(영어·27회)	박문수(물리·31회)
남복희 (경여사연·8회)	이정호(교육·11회)	황혜숙(영어·15회)	심봉석(생물·17회)	유운재(지리·22회)	김혜경(생물·27회)	전용근(물리·31회)
변해명 (교원국어·75년)	이성국(역사·11회)	박연수(수학·15회)	이태우(생물·17회)	김광숙(가정·22회)	김연호(영어·28회)	이복균(체육·32회)
구분혁(국어·1회)	김지태(물리·11회)	서복원(수학·15회)	양 회(지구·17회)	이성구(교육·23회)	김철진(영어·28회)	박 석(체육·33회)
이완기(영어·1회)	김준말(영어·12회)	윤성원(수학·15회)	고두원(체육·17회)	김철웅(영어·23회)	김경자(지리·28회)	송만호(불어·33회)
정일환(교육·3회)	박진영(지리·12회)	이정옥(생물·15회)	사중식(체육·17회)	박정숙(영어·23회)	강 완수학·28회)	김동욱(사회·33회)
이두현(국어·3회)	송임숙(생물·12회)	이중호(교육·16회)	최현섭(국어·18회)	박효순(영어·23회)	방재욱(생물·28회)	오건주(생물·33회)
조동순(영어·4회)	이법국(교행·13회)	박중삼(교심·16회)	박명학(영어·18회)	박경서(독어·23회)	성기훈(체육·28회)	박상필(불어·34회)
김상준(국어·5회)	박희숙(국어·13회)	여명하(교행·16회)	박은자(영어·18회)	이호건(역사·23회)	박삼서(국어·29회)	송광섭(수학·34회)
김준문(사회·5회)	성철용(국어·13회)	백운택(영어·16회)	이희숙(영어·18회)	최경식(물리·23회)	김성민(불어·29회)	김수환(수학·35회)
이상희(사회·5회)	조윤숙(국어·13회)	이기방(영어·16회)	홍순재(독어·18회)	손경희(가정·23회)	김형기(불어·29회)	최명재(수학·35회)
김영의(사회·6회)	안인애(영어·13회)	이용재(영어·16회)	김조영(지리·18회)	이한규(체육·23회)	김순덕(사회·29회)	박철홍(교육·36회)
박한식(수학·6회)	박양선(지리·13회)	이기석(지리·16회)	이규량(물리·18회)	송정실(영어·24회)	권혁창(지구·29회)	송호열(지리·36회)
홍성오(생물·7회)	송재환(물리·13회)	윤정해(화학·16회)	이현규(교육·19회)	이상재(수학·24회)	이홍식(지구·29회)	백순근(교육·37회)
신태복(영어·8회)	한상주(생물·13회)	정완호(생물·16회)	이흥기(지리·19회)	박연수(역사·25회)	황승기(지구·29회)	정수현(교육·37회)
강신주(사회·8회)	조신자(가정·13회)	유천근(교육·17회)	김영순(생물·19회)	류점영(수학·25회)	강경돈(영어·30회)	정희욱(교육·38회)
신란식(사회·8회)	최영상(영어·14회)	이희용(교육·17회)	윤주배(교육·20회)	정봉섭(수학·25회)	윤재욱(영어·30회)	김병주(교육·39회)
김관영(화학·8회)	장기욱(사회·14회)	박성순(교심·17회)	강명순(영어·20회)	손문호(교육·26회)	한기선(영어·30회)	임철일(교육·39회)
이호목(가정·8회)	황선용(사회·14회)	정중호(교심·17회)	최석진(지리·20회)	김현중(국어·26회)	안주희(사회·30회)	임경순(국어·40회)
홍정식(사회·9회)	윤세철(역사·14회)	정항시(교심·17회)	박정식(생물·20회)	엽경애(국어·26회)	노정학(수학·30회)	여태용(화학·40회)
선병기(체육·9회)	이장수(수학·14회)	신경자(영어·17회)	주성태(생물·20회)	임학수(국어·26회)	이명준(수학·30회)	신종호(교육·43회)
박용현(교행·10회)	김동길(화학·14회)	정두영(영어·17회)	김현덕(체육·20회)	민종식(영어·26회)	김천식(화학·30회)	강홍규(수학·44회)
이현택(국어·10회)	이현채(화학·14회)	최준명(영어·17회)	박성수(교육·21회)	전병일(영어·26회)	김하준(생물·30회)	임선희(윤리·52회)
	조진현(화학·14회)	윤용혁(독어·17회)	이이환(영어·21회)	김덕호(화학·26회)	한성훈(물리·30회)	이제길(체육·55회)
	김중성(체육·14회)	이 형(수학·17회)	유정숙(체육·21회)	묵창수(생물·26회)	전영숙(국어·31회)	박헌덕(윤리·58회)

## 2009 송년의 밤 개최

- 일 시 : 2009년 12월 3일(木)
- 장 소 : 친코 서대문점  
본 동창회 건물 地下(홈페이지 약도 참조)
- 회 비 : 30,000원
- 기 타 : 옥션 개최
- 참가신청 : ① 신청자는 과별로 지정 좌석번호 배정할 예정  
② 미신청자는 비지정 좌석 선착순

※ 장소 및 상세 안내는 홈페이지(www.snueaa.or.kr)에서 확인  
☎ 6399-6500 / Fax : 6399-6501

# 대한민국의 내일을 키웁니다

## 교육전문 출판그룹 천재교육

교과서를 비롯 유아, 유치부터 초·중·고등까지

연간 3,000여 종의 교재를 출판하여

국내 1위의 출판기업으로 성장한 천재교육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를 통해

이 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재 후원, 장학사업, 결식아동 및 불우이웃 돕기 등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